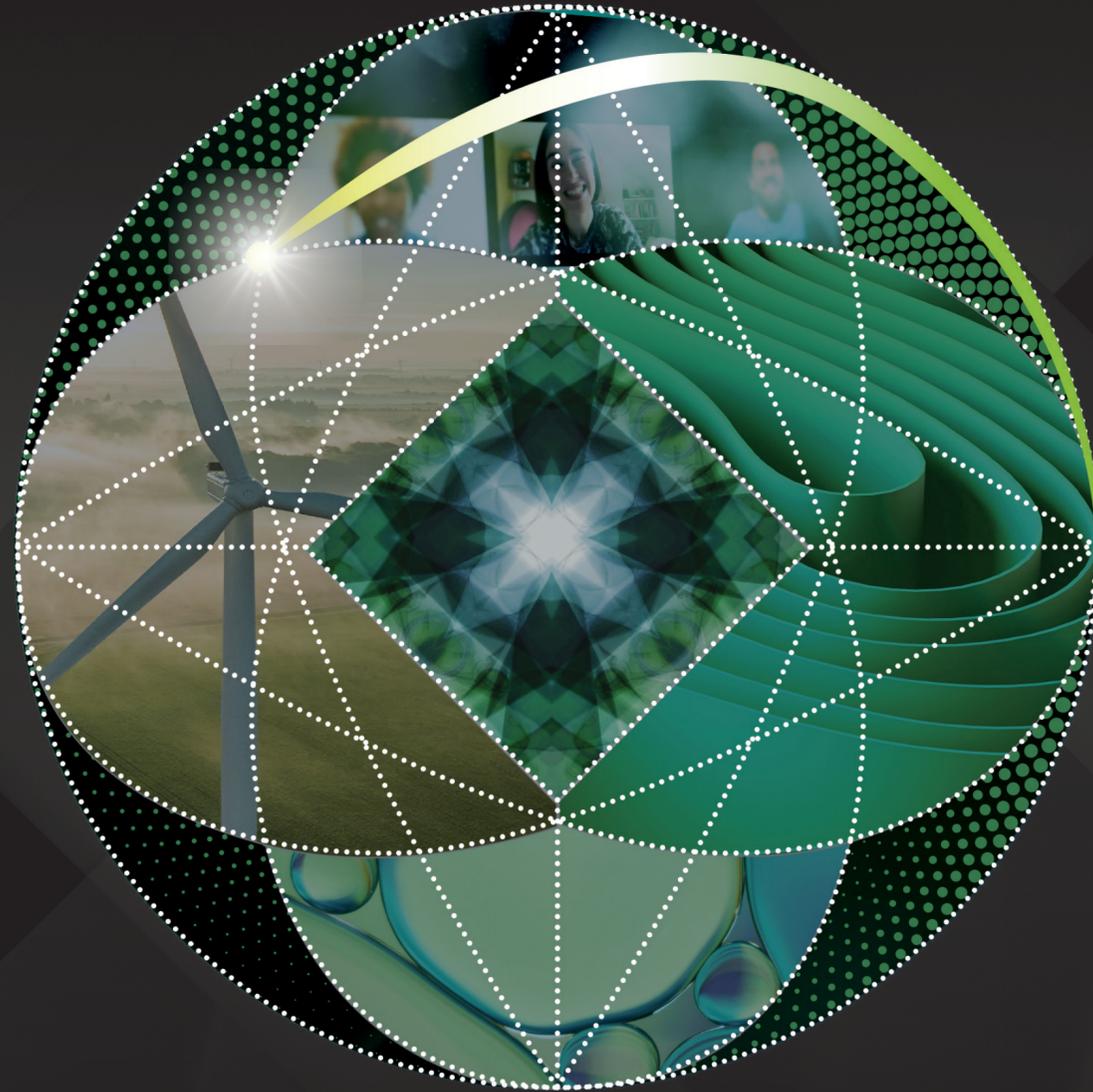


Deloitte.



2024 글로벌 조세 정책 서베이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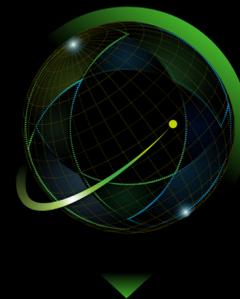
2024 글로벌 조세 정책 서베이는 조세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조세 이슈들을 다룬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생성형AI(Generative AI)는 현재 조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서, 응답자들에게 이러한 기술이 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응답자들은 다섯 가지 주제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위를 매겼다.



1. 투명성&보고



2. 세금의 디지털화



3. 국제 조세 개혁



4. 일의 미래



5. 기후&
지속가능성

전체적인 순위를 보았을 때, 글로벌 최저한세인 '필라2'(Pillar Two)와 같은 시급한 문제가 왜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필라2의 영향이 2025년까지는 체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주제들이 전 세계 기업들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01 ▶ 투명성&보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업 세무의 최우선 이슈가 되고 있다. 세무정보 공시는 준수, 계획, 판단, 기여, 거버넌스, 위험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금 유형과 관할권에 걸친 글로벌 세금 관리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놀랍지 않다.

대부분의 기업은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가 자사의 세무 투명성 보고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세금 데이터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기업이 규정 요구 사항 외의 정보도 공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 관련 업무에 대한 압박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논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데이터가 ESG와 같은 광범위한 보고에 포함되면서, 다양한 부서 간 협력이 세무 투명성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수 요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세무 투명성 전략을 갖추고 있지만, 막상 실행에 돌입하면 고위 경영진의 신뢰 확보부터 거버넌스, 데이터 및 위험 관리, 적용 가능한 규정에 대한 이해까지 여러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세금의 공공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비율



02 ▶ 세금의 디지털화

서베이 응답자들은 세무 업무에서 디지털화가 일반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조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인 '조세 행정 3.0'도 지속적인 진전을 보인다고 답했다.

많은 응답자들은 조세 행정 3.0이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는 증가하는 비용과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조세 행정 3.0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잠재적 혜택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고 실행 로드맵이 없다는 데 기인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향후 3년간 세무 준수에 있어 생성형AI의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상당한 인간 감독 필요), 예상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무 부문에서 AI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속도가 느리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당한 초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무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및 전자 무역/관세에 대한 비즈니스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EU의 디지털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부가가치세(ViDA, VAT in the Digital Age)에 대한 높은 지지는 세법과 비즈니스 간의 조화와 기준의 일관성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세무 준수 관련 AI 활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 수준



03 > 국제 조세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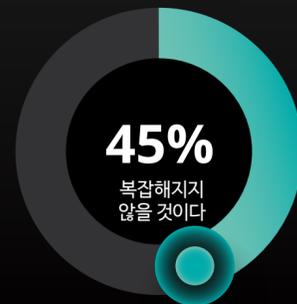
디지털세인필라2와필라1은국제 조세의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꼽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이 낮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세금 투명성과 디지털화가 기업이 지금 당장 직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필라2의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서베이 진행 당시 필라1과 디지털 서비스세의 시행이 불확실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필라2가 향후 3년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증가하는 복잡성에 대한 우려와 기존 조치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필라2의 시행으로 명목세율을 기반으로 한 과도한 조세 경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기업들은 필라2의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For an in-depth look at Pillar Two practice insights read the 2024 Pillar Two survey: [Committed to Compliance](#)

필라2로 세무 보고 의무의 복잡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비율



04 > 일의 미래

국제 원격 근무의 확대에 따른 유연성과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 및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가 조직의 주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응답자들은 국제 원격 근무의 세금 영향을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로 꼽았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국제 원격 근무에 따른 법인세 영향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직원 세금 및 사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이는 HR, 세무, 이동성, 이민 법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팀이 국제 원격 근무와 관련된 세금, 법적 및 규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제 원격 근무가 세무 분야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만큼, 응답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무 규정의 조정, 명확한 지침 제공, 그리고 간소화된 행정 절차 마련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제 원격 근무에 대한 응답자의 주요 우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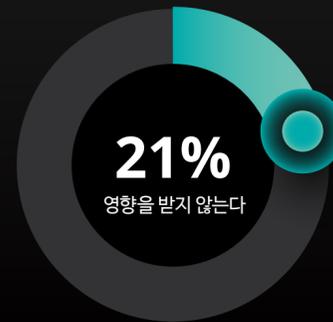
05 ▶ 기후&지속가능성

기후 및 지속 가능성은 마지막으로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 주제가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 조치 외에 다른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녹색' 세금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환경세 중에서도 에너지 소비세가 응답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폐기물 및 오염세는 의외로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했다.

이번 서베이는 탄소비용을 측정해 가격을 매기는 탄소 가격제(carbon-pricing)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예: 기후 변화 완화, 청정 기술)과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예: 높은 준수 비용, 복잡한 법률, 제한된 지침) 사이의 주요 과제를 드러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개요

2024 글로벌 조세 정책 서베이는 세무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다섯 가지 글로벌 조세 정책 주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조세 이슈들을 다룬다. 이번 서베이는 이러한 주제가 전 세계 기업에 미치는 현재의 영향과 세무 리더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주제들의 상대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위를 매겼다:

전체적인 우선 순위는 이러한 트렌드가 세무 업무 내에서 일상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 본질적인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 및 보고와 세금의 디지털화의 경우, 세무 보고 요구 사항의 증가와 세금의 디지털화는 이미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필라2는 아직 규정 시행 과정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설문이 진행된 202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필라1 및 디지털 서비스 세금의 시행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했다.



개요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응답자들이 원격 근무의 세금 영향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모든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 중 상위 3개를 선정하는 질문에 투명성 및 보고, 세금의 디지털화를 꼽았다.

AI 및 생성형AI의 세금에서의 잠재적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응답자들에게 AI/생성형AI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약 3분의 1만이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간주했다. 아프리카의 응답자들만이 이 사안을 상위 3개 이슈 중 하나로 지목했다.

아래 두 차트는 지역 및 산업 부문별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3개 주제를 보여준다.

세무 환경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지역별(상위 3위)



세무 환경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산업별(상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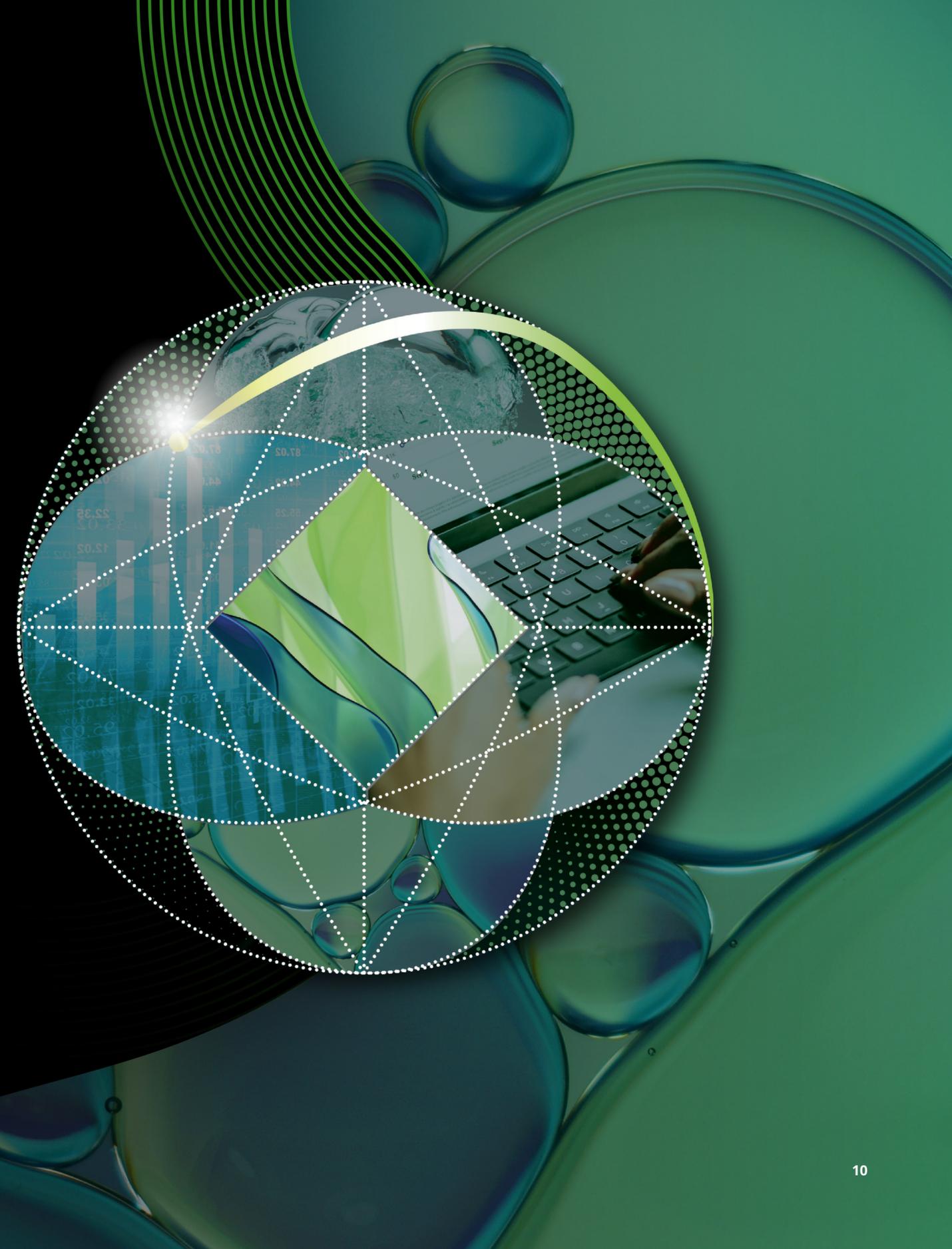


01 ▶ 투명성 및 보고

서베이에서 '투명성 및 보고'는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세무 공시가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MNEs)이 세무 당국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세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제 세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과 고위 경영진도 정보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필라2의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Anti Global Base Erosion) 규칙 등 추가적인 보고 요구 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무 정보는 EU의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른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보고에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 및 보고는 더 이상 세무 업무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기관에서 공공으로 투명성 요구 증가

EU와 호주의 공공 국가별보고서(PCbCR, Public CbCR)와 같은 국제 세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다국적 기업에 상당한 보고 의무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것이다. 응답자의 대부분(70%)은 PCbCR이 공공 보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공시 지침의 요구 사항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하지만, 많은 응답자들이 엄격히 요구되는 규정을 넘어서 추가적인 세무 정보를 공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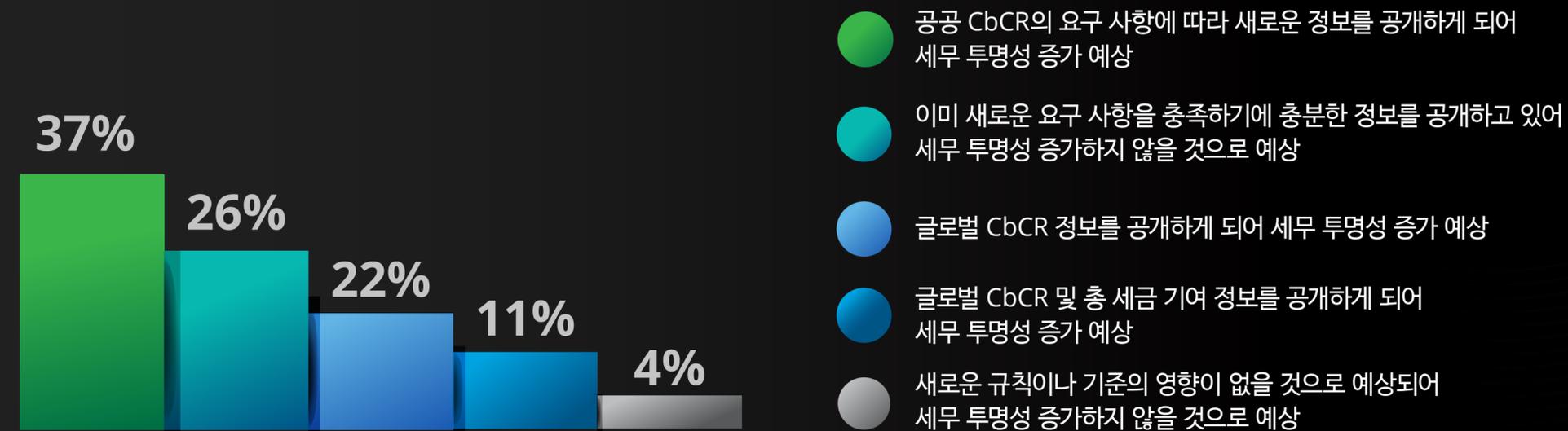


투명성 및 보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입장은 지역 간 큰 차이가 없다. 전통적으로 세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던 EU 외 지역에서도 공시에 필요한 정보와 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PCbCR과 같은 세금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넘어서, 다국적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증가하는 보고 요구 사항에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응답자의 84%는 EU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 하에서 세금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공 국가별 보고서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공공 세무 투명성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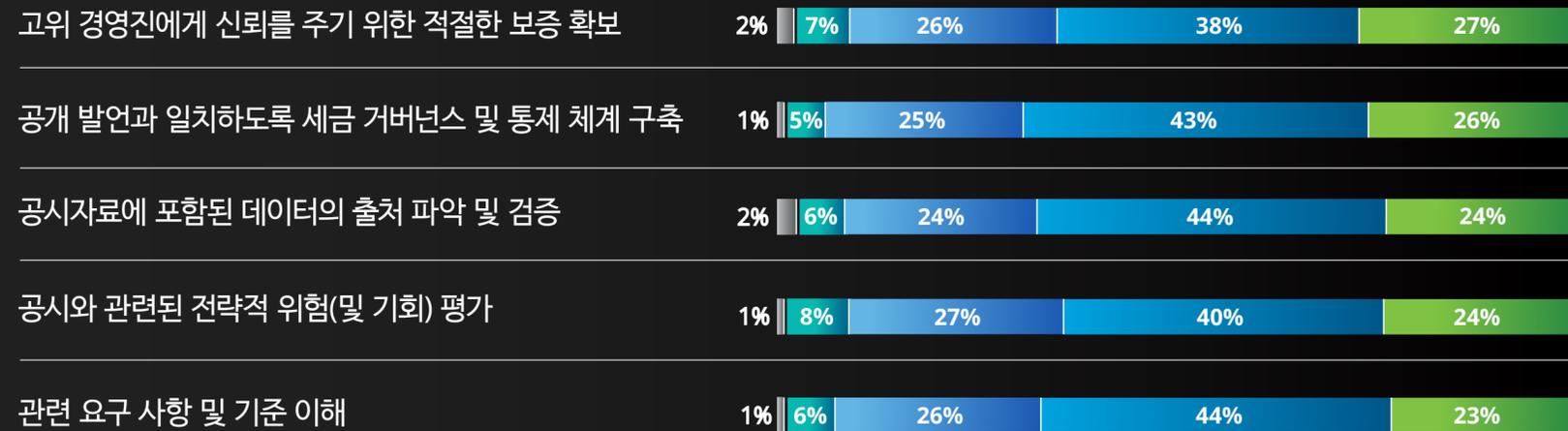


투명성 및 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

거의 모든 응답자(97%)가 세무 투명성 전략을 갖추고 있지만, 전략 실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들이 세무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면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 투명성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은 앞으로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될 것이며, 다국적 기업은 규정 준수와 비즈니스 요구 사이에서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세무 투명성 전략 실행의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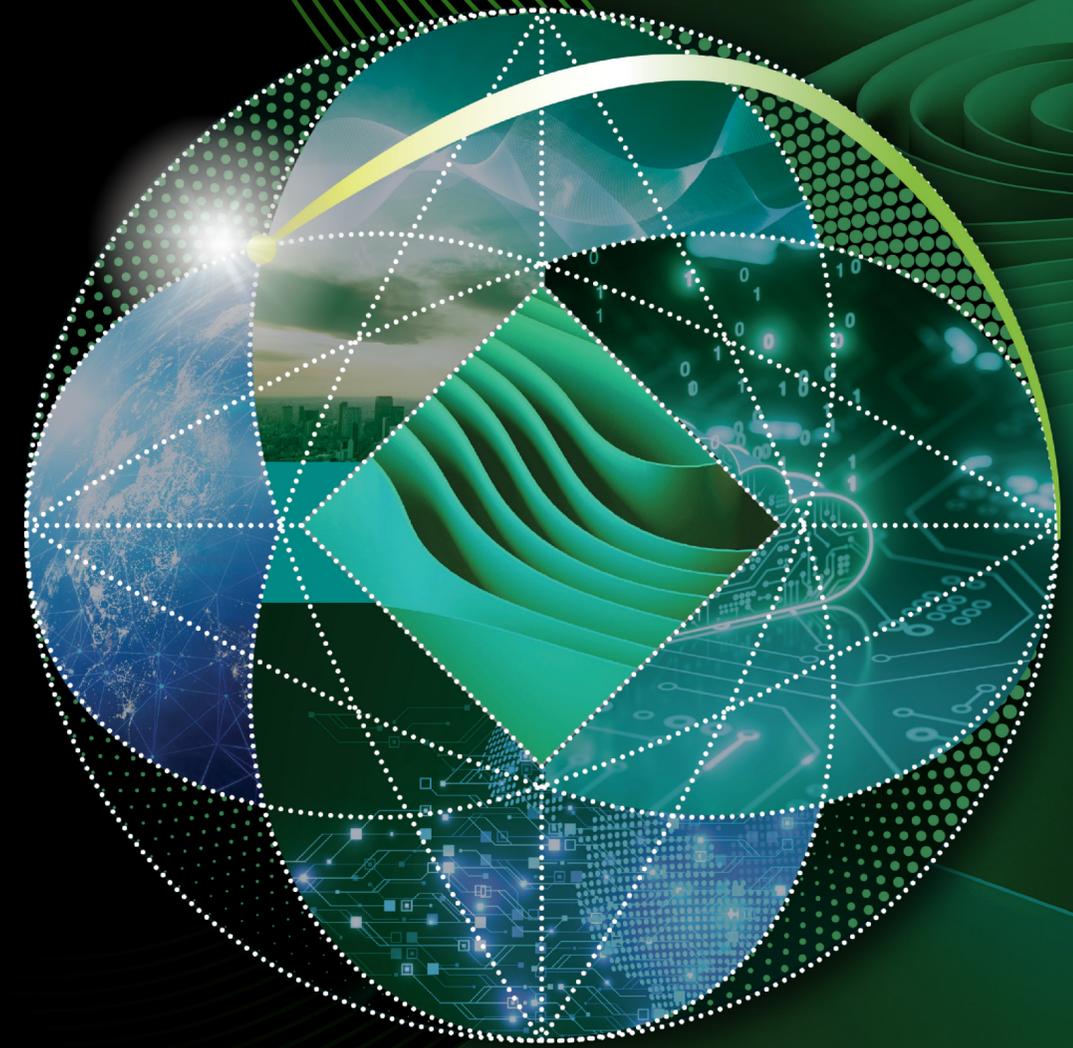


02 ▶ 세금의 디지털화

세금의 디지털화는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꼽혔으며, 조사된 모든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의 상위 3위 안에 들어간 유일한 이슈이다. '투명성 및 보고'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디지털화는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로, 세무 업무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이다.

조세행정 3.0으로의 진전

응답자들이 속한 국가의 조세 행정 3.0으로의 진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91%)이 최소한 어느정도의 진전이 있다고 응답했다. 흥미롭게도, 아프리카의 응답자의 20%가 조세 행정 3.0으로의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응답했다.



세금의 디지털화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조세 행정 3.0 모델이 고객 서비스 개선, 세무 당국과의 협력 관계 개선, 세무 감사 간소화 및 효율화, 세무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절감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점 중 응답자들의 기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항목은 없었으며, 응답자의 3분의 1은 오히려 세무 업무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세무 당국과의 협력 관계 개선을 주요 이점 중 하나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 60%에 달해 특히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조세 행정 3.0의 의미에 대한 국가별 인식 차이와 잠재적 결과에 대한 명확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및 디지털 목표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조세 행정 3.0 모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세 행정 3.0으로의 진전



조세행정 3.0
진전 없음



약간의 진전이 있음



진전 중임



상당히 진전됨

세금의 디지털화

응답자의 다수(59%)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및 무역/관세를 위한 디지털 보고)이 규제 준수를 간소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 때문에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10%는 이로 인해 규제의 준수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EU의 디지털 시대 부가가치세(VAT in the Digital Age, ViDA)에 대해 응답자의 75%는 EU 전역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자 보고에 대해 통일된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기업들이 제도의 이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제도와 비즈니스 간에 대한 조화와 조정이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자무역/통관 요건 도입으로 예상되는 비즈니스 영향



규제 준수의 간소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



더 복잡해지는 규제 준수



현 단계에서는 없음 - 본국에서 그러한 요구 사항이 제안되지 않음

세금의 디지털화

AI의 역할

AI를 세무 준수에 사용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향후 3년 내에 AI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응답자는 AI 사용 시 여전히 상당한 인간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프리카 응답자 중 60%는 AI 기반 세무 준수가 상당한 인간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AI로 지원되는 세무 준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상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정확도 향상 (34%)
- 비용 절감 (23%)
- 기업 전반에 걸친 세금 전략 일관성 향상 (15%)
- 핵심 기능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 (14%)
- 규제 준수 강화 (14%)

이러한 이점들 중 어느 것도 월등히 높은 선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아직 AI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AI의 세무 업무에서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응답자의 29%만이 자국에서 AI 사용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규정 초안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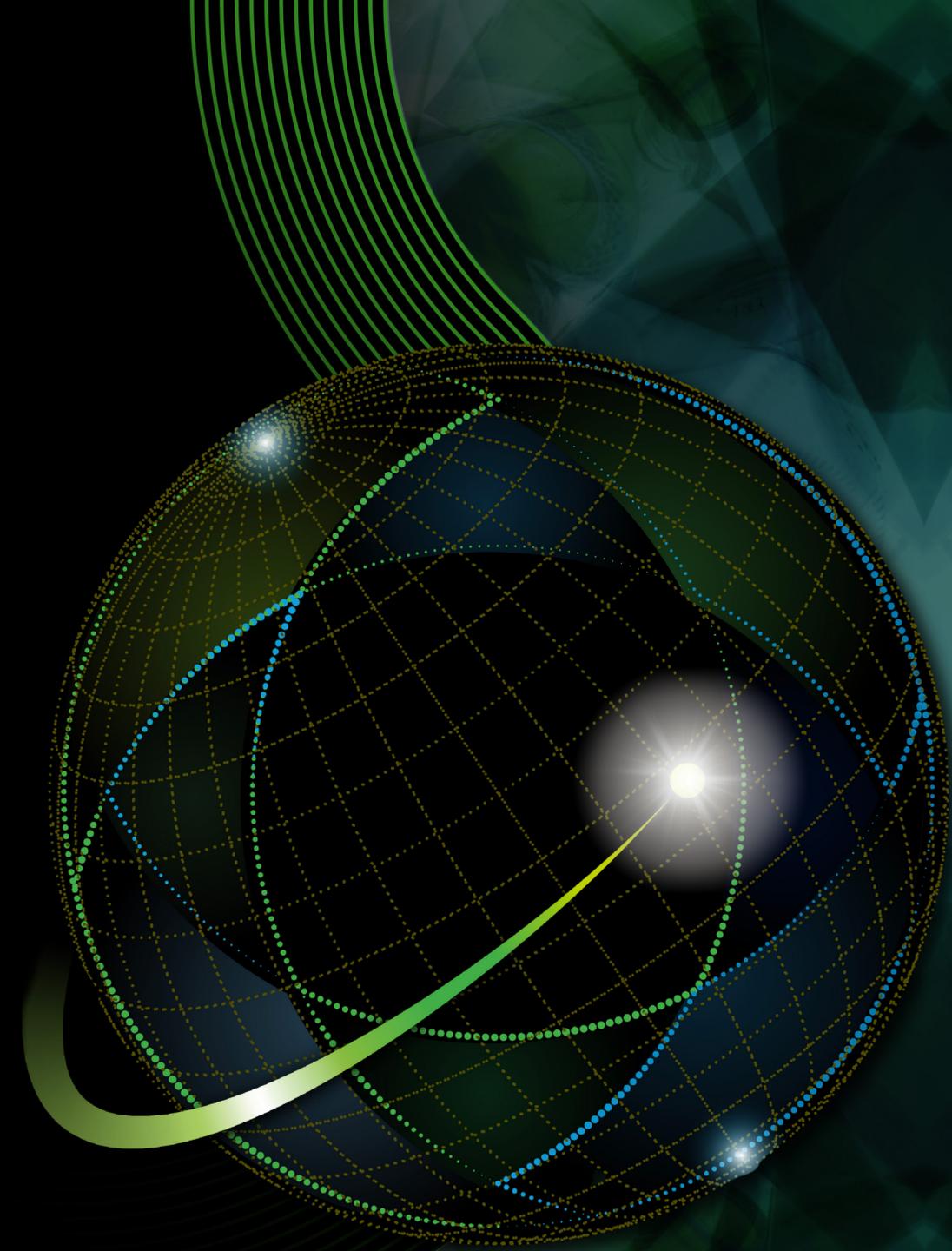
03 ▶ 국제 조세 개혁

OECD의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방지(BEPS) 방안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의 필라1과 필라2는 국제 조세의 주요 이슈로 상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디지털세인 필라1과 필라2, 그리고 UN의 대안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는 국제 조세 개혁은 세 번째로 순위가 매겨졌다. 지역별로는 유럽, 아시아 태평양(APAC),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의 상위 3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필라2의 본격적인 시행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OECD 주도의 다자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기업과 국가는 필라2의 논의 경과와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반면, 세무 투명성과 디지털화는 기업들의 지금 현재 직면한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필라2가 향후 몇 년 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조세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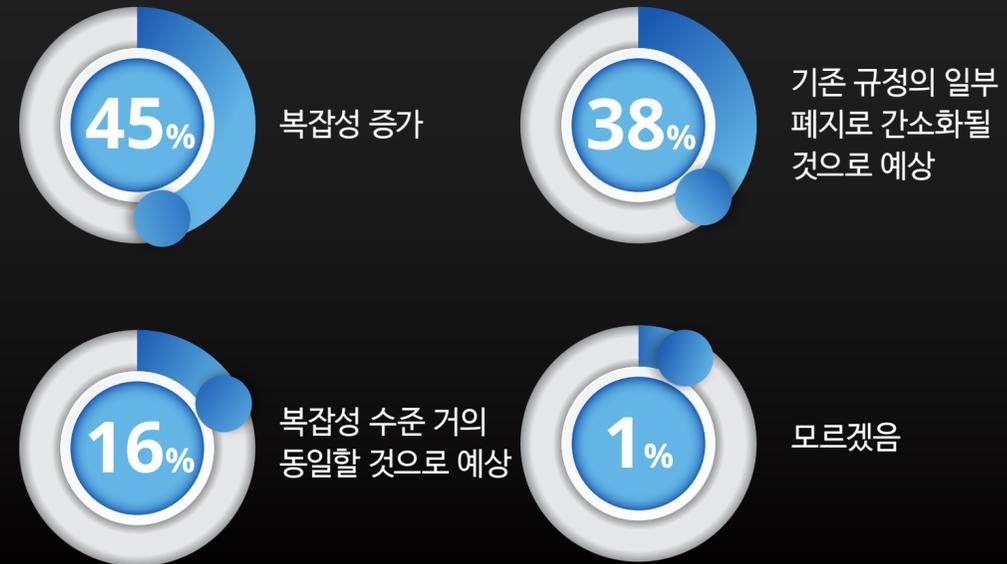
필라2의 영향

응답자들은 필라2의 도입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필라2 규정이 기업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지 아니면 감소시킬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기존 세법의 일부 폐지로 인해 세무 처리가 단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잡성에 대한 기대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필라2의 시행 시점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시행에 초점을 맞출 경우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법이 정리되면서 간소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OECD와 EU 집행위원회는 필라2 이후 세법을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최근 언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60%)와 북미(52%)의 응답자들은 복잡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아시아 태평양(APAC, 56%)과 중동(56%)의 응답자들은 규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필라2가 법인세의 복잡성에 미칠 기대 영향



국제 조세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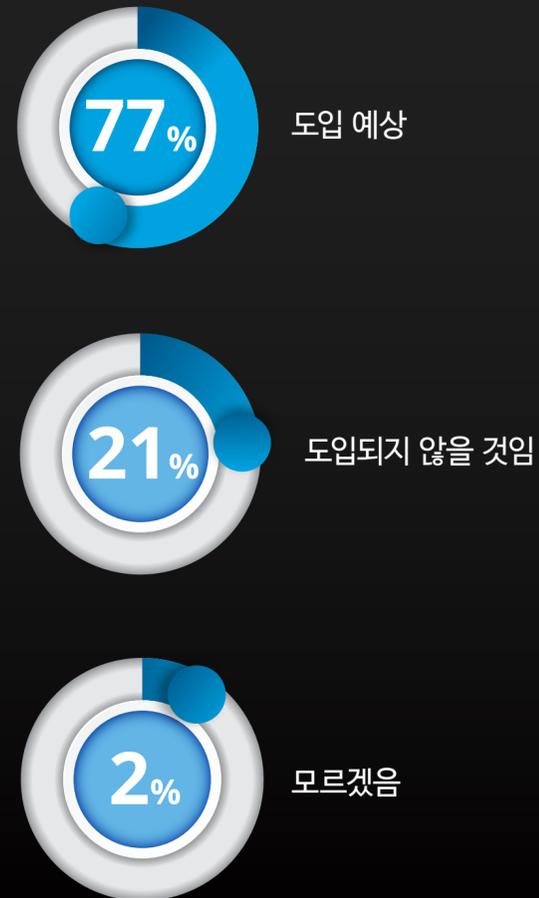
필라2로 인한 투자 인센티브 전망

필라2의 시행을 앞두고, 법인세 혜택으로 투자 유치를 해왔던 국가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2 규정을 준수하는 투자 인센티브의 개발은 국제 조세 체계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필라2의 시행이 투자 인센티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히 기대하고 있으며, 87%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수준은 북미 지역(62%)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필라2 시행 이후 투자 인센티브 도입 예상



For an in-depth look at Pillar Two practice insights read the 2024 Pillar Two survey: [Committed to Compliance](#)

국제 조세 개혁

필라1 시행 시기

설문조사는 필라1의 시행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필라1이 향후 몇 년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최근 최종 합의안 비준 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서 발효 시기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디지털세의 발전 방향

필라1과 필라2의 시행으로 인해 UN은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맞춰 국제 조세 협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이 우선시할 항목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디지털 서비스 과세
-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고려사항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한 접근 방식 보장
- UN 모델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Subject to Tax Rule)
- 거주 국가에서 원천 국가로 과세권 이전

04 ▶ 일의 미래

현대의 근무 방식이 세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서베이는 원격 근무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세무 및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인재 유치와 유지의 관점에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서베이에서 원격 근무는 네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언급되었다. 지역별로 아프리카의 응답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었고,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상위 3개 주제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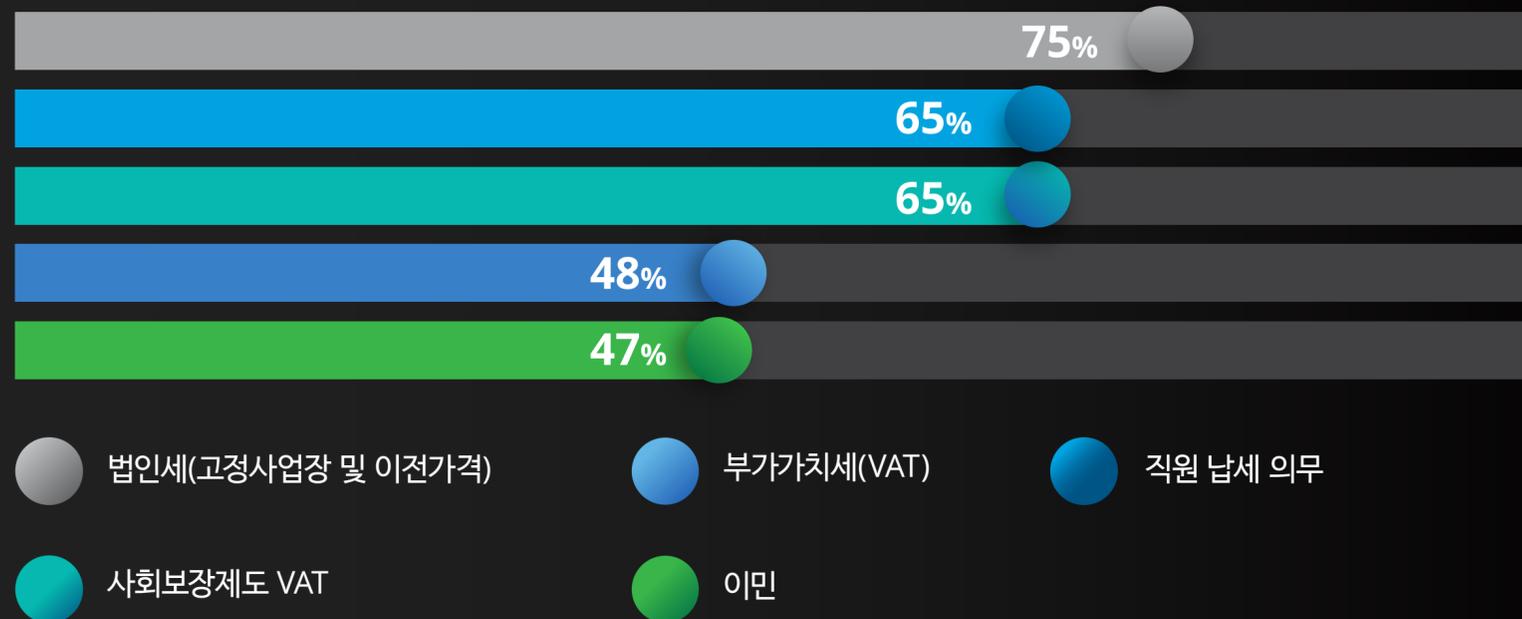
일의 미래

원격 근무의 영향

응답자들은 법인세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원격 근무와 관련하여 조세와 비조세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프리카(85%), 중동(81%), 아시아 태평양(80%)에서는 고정사업장 및 이전 가격 문제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았으며, 직원 납세 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아프리카(73%)와 중동(76%)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국제 원격 근무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상위 3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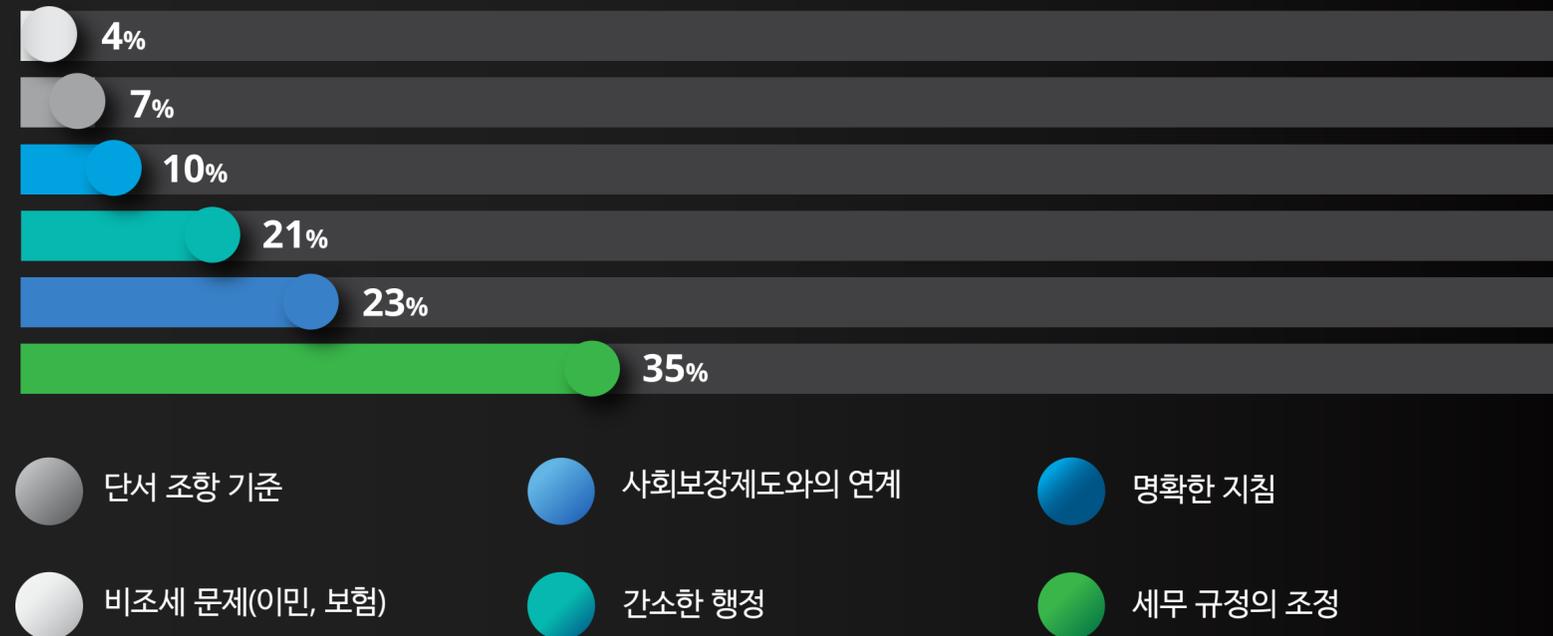


일의 미래

향후 발전 방향

국경을 초월한 원격 근무는 비교적 새로운 이슈로서 이와 관련된 국제 조세 규정과 프레임워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조세협회와 UN, OECD는 이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원격 근무와 관련된 조세 규정 제정에 있어 응답자들이 OECD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해 꼽은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기 국제 원격 근무 규정 제정에 있어 OECD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45%)와 중동(44%)에서 세무 규정 조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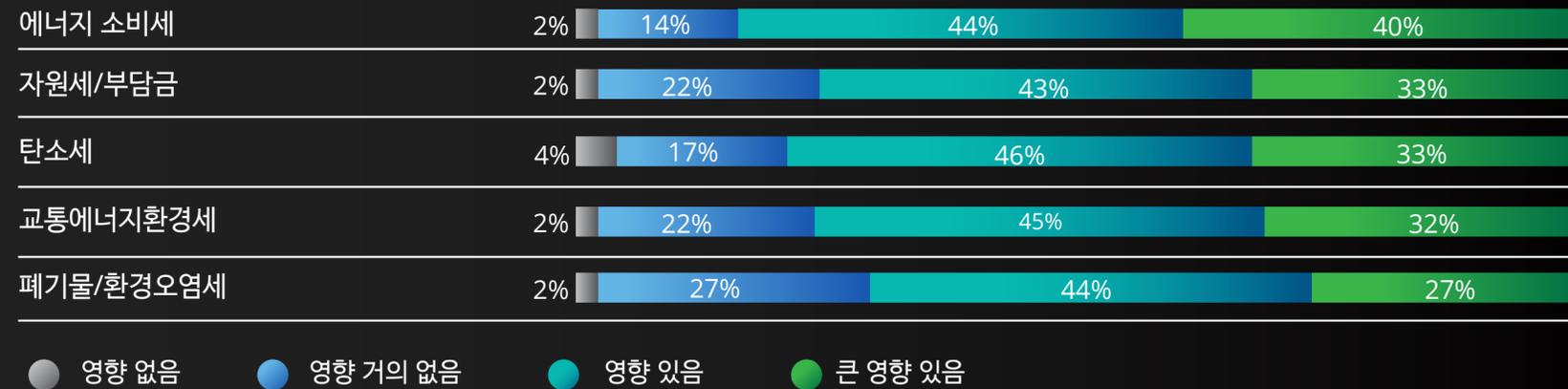
05 > 기후&지속가능성

서베이 응답자의 3분의 1이 기후 및 지속 가능성을 세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택했지만, 전체 조사에서는 다섯개 주제 중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였다.

환경세의 영향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이 비즈니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비즈니스 및 운영 요소의 예상되는 영향



기후&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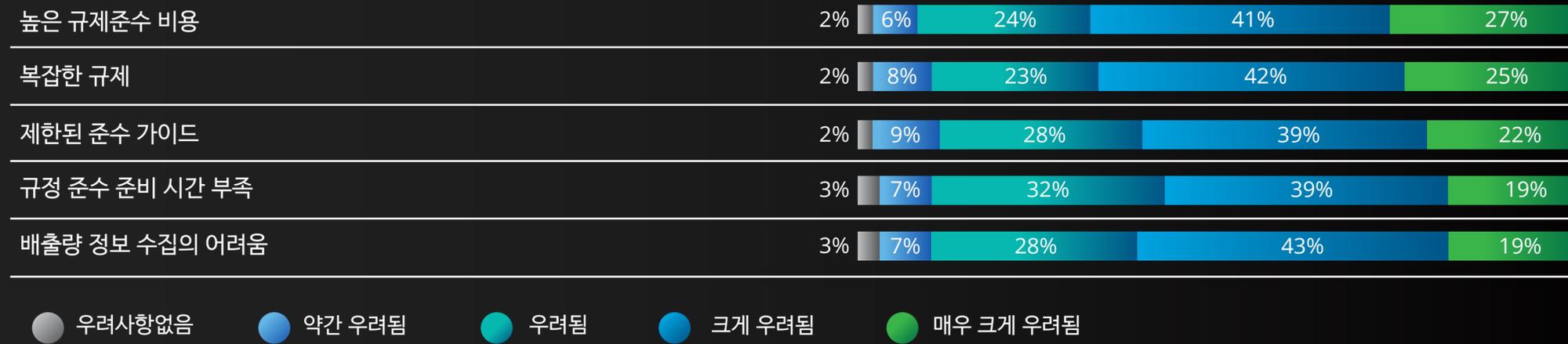
기대했던 대로, 에너지 소비세와 탄소세와 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이 전체 응답자에게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응답자의 51%와 중동 응답자의 50%는 에너지 소비세의 영향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별로는 에너지, 자원 및 산업 부문(ER&I)에서 43%의 응답자가 탄소세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약 30%의 응답자는 폐기물 및 환경오염세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근 탄소세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인지도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기후&지속가능성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그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중동 응답자의 34%는 EU CBAM과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여 그 영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EU CBAM 과제



기후&지속가능성

향후 발전 방향

응답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CBAM 또는 탄소 가격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 가격제의 확대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많은 응답자는 이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탄소 가격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을 높여 배출량 감소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응답자의 83%는 투명성 및 보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ESG 공시가 자사의 세무 업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역 전반에 걸쳐 일관되었지만, 북미 지역의 응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세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29%는 ESG 공시 논의가 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 글로벌 조세 정책의 미래 방향

다국적 기업의 세무 리더들은 다양한 우선 순위가 얽힌 도전 과제에 점점 더 많이 직면하고 있다. 필라2는 조세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현재는 세무 투명성과 디지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필라2의 시행으로 인해 정보 신고서 제출이 필요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한 세무 데이터 관리를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무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요구 사항도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의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필라2 이후 OECD와 EU 집행위원회가 세법 정리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세무 리더들은 세무 준수의 디지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세무 업무 간소화에 기대를 품고 있다. 반면, AI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세 행정 3.0과 세무 분야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규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는 명확한 개념 정의와 실행 로드맵을 제공하여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일의 미래에 있어 기업들은 법인세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원격 근무에 대한 세무 규정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세금뿐만 아니라 이민 및 고용법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는 EU CBAM은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이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 기후와 투명성 간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ESG 보고가 자사의 세무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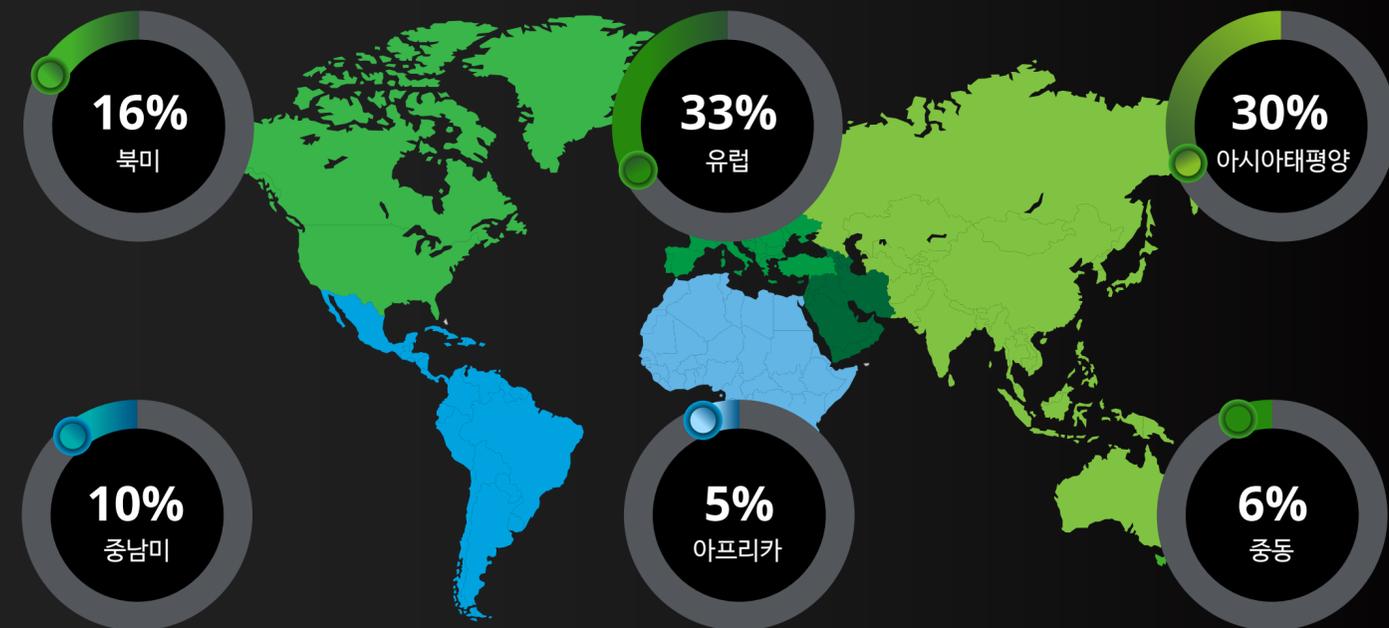
다섯 가지 글로벌 조세 정책 주제를 통해 기업들은 세무 투명성 및 보고에 따른 증가하는 부담, 필라2로 인한 복잡성 증가, 원격 근무의 준수 위험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들이 디지털화의 증가와 필라2 이후의 세금 경쟁에서 나타나는 기회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베이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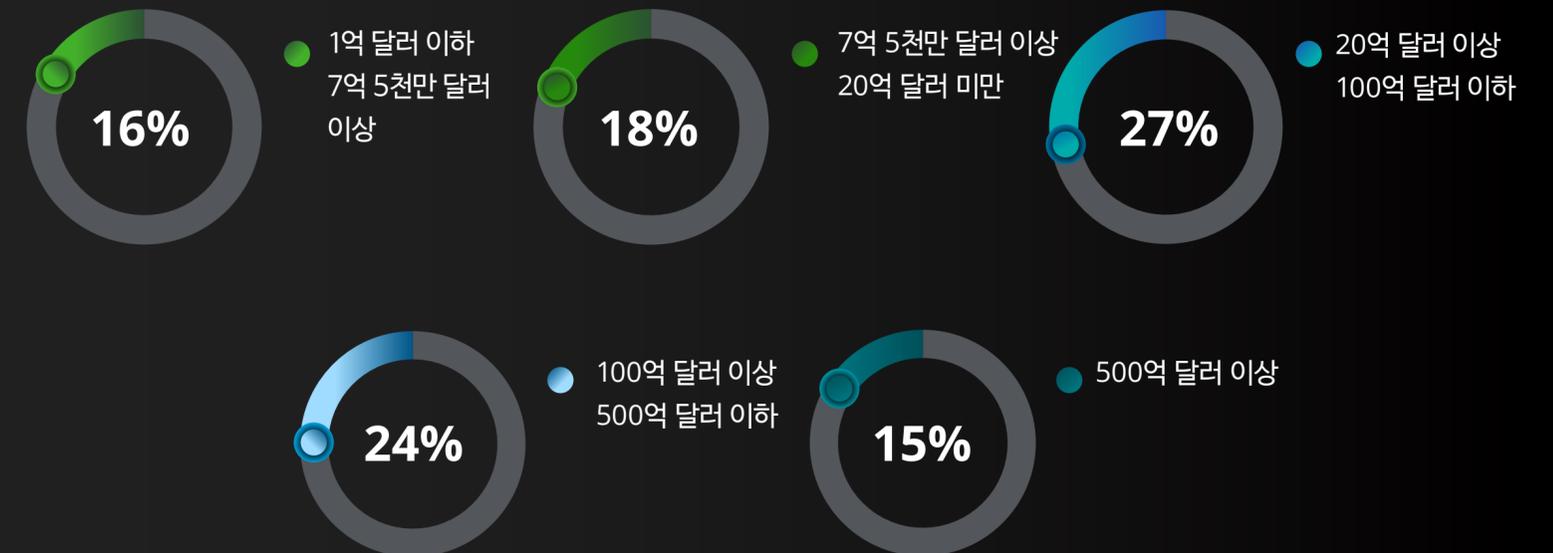
딜로이트는 2024년 3~ 4월 전 세계 세무 부문 리더(전체의 69%), CFO(전체의 28%), 기타 임원(전체의 3%)을 포함하여 총 1,01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다. 28개 국가에서 조사된 업종 분포는 소비자 산업(전체의 27%), 에너지, 자원 및 산업(ER&I, 전체의 23%), 기술, 미디어 및 통신(TMT, 전체의 22%), 금융 서비스 산업(FSI, 전체의 20%), 생명 과학 및 헬스케어(

전체의 8%)로 나뉘어 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 회계 연도에 최소 1억 달러의 글로벌 연간 수익을 냈으며, 90%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이다. 서베이의 목적은 조세 정책 개혁 및 트렌드에 대한 기업의 견해, 우려 사항 및 기업의 대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응답자의 지역, 회사 규모(수익 기준), 직함 및 역할 분포는 아래와 같다.

서베이 응답자의 근무 지역



미 달러 기준 지난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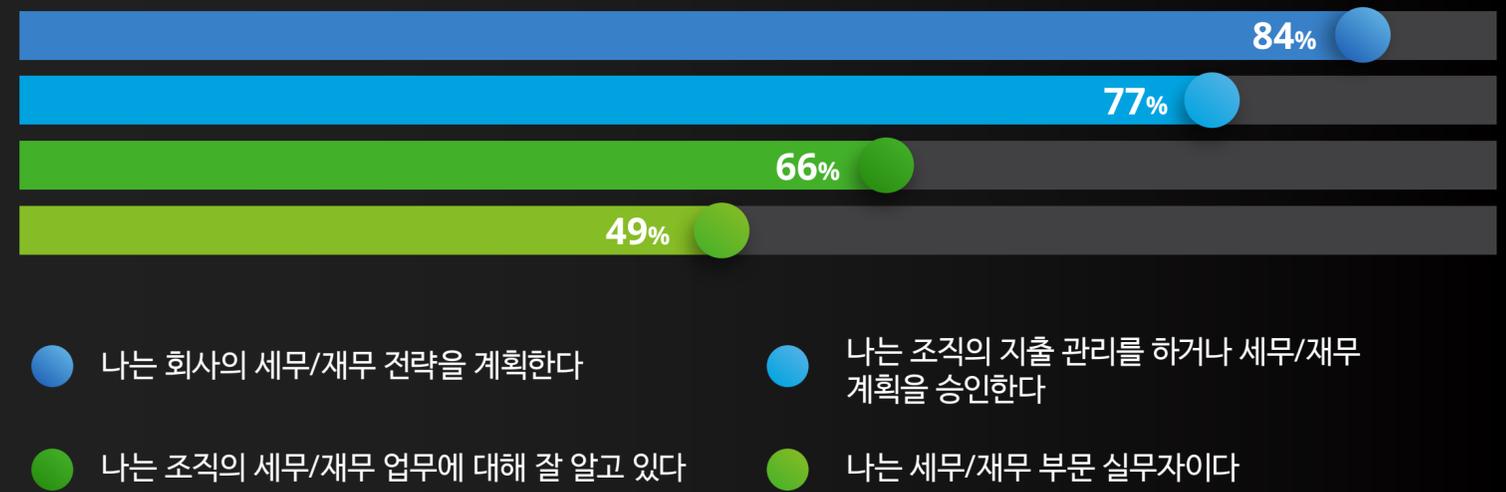


서베이 방법론

직급



회사의 세무/재무 결정에 대한 책임 수준



Contact

딜로이트 세무자문본부 (Tax & Legal)

세무자문본부는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본부는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자문 등의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무자문본부 Service Line별 전문가



구현모 파트너

딜로이트 Tax Technology Consulting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126

E-mail: hygoo@deloitte.com



이용찬 파트너

딜로이트 이전가격 자문 그룹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828

E-mail: yongclee@deloitte.com



이신호 파트너

딜로이트 국제 조세 자문 그룹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375

E-mail: shinlee@deloitte.com



최승웅 파트너

딜로이트 기업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517

E-mail: seungchoi@deloitte.com



임홍남 파트너

딜로이트 기업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336

E-mail: honglim@deloitte.com



서민수 파트너

딜로이트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본부

Tel: 02 6676 2590

E-mail: mseo@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provides industry-leading audit and assurance, tax and legal,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and risk advisory services to nearly 90% of the Fortune Global 500® and thousands of private companies. Our people deliver measurable and lasting results that help reinforce public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 clients to transform and thrive, and lead the way toward a stronger economy, a more equitable society, and a sustainable world. Building on its 175-plus year history, Deloitte spans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457,000 people worldwid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